

##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아동의 과제수행 열심도에 미치는 효과<sup>1)</sup>

정 영 속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과제수행의 지속 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어머니에 대한 배려의 효과를 보여준 정영속(1994)의 결과를 종속변인을 달리하여 반복검증하고자 두 개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오른손잡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선물이 추가되는 집단, 어머니선물이 추가되는 집단, 그리고 선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통제집단에서 일정한 시간 안에 신체적으로 힘들고 고된 과제를 어느 정도 열심히 수행하는지(과제수행의 열심도)를 측정하였다. 3분짜리 연습시행을 2회 시킨 후 15분간의 본 시행에서의 수행량을 측정하였던 실험1에서는 남, 여에 따라 수행 양상이 달랐다. 남자 아동의 경우, 어머니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은 자기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이나 통제집단의 아동들보다 힘든 과제인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열심히 하였으나, 자기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과 통제집단의 아동들 간에는 수행에 차이가 없었다. 여자 아동의 경우에는 세 조건 간의 수행에서 차이가 없었다. 성차의 효과를 줄이는 방안으로 연습시행의 시간을 7분 30초로 늘여 2회의 연습을 시킨 실험2에서는 실험1에서 나타났던 남, 여 간의 수행 양상의 차이가 사라졌고, 실험1에 참여한 남자아동들에게서 나타난 양상과 동일한 결과를 얻어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에게 득이 생기는 경우보다 어머니에게 득이 생기는 경우에 아동들이 힘든 과제를 더 오래 수행하였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생기는 득으로 인한 자기통제의 한계성과 개인이 좋아하는 타인에게 생기는 득으로 인한 자기통제의 우월성을 반복적으로 입증해주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말해주듯이, 우리의 삶에서는 시간적 제약없이 어느 때든 무조건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일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정한 시기 안에 열심히 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이루는 일들이 많다.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하려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또는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해

야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회는 특정의 시간대에 적합한 인생과업을 수행하도록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개인에게 요구하며(Erikson, 1960), 개인은 그러한 일들을 정해진 시간내에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성과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일정한 시간 내에 바람직한 성과를 내는 어떤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한다는 것이 언제나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바람직한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데에서 오는 지루함(Berlyne, 1960)이나, 하고있는 일보다 더 재미있는 일

1) 이 논문은 1995년도 부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로 인해 하고있는 일을 포기하도록 유인하는 유혹(Patterson & Mischel, 1976), 또는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Eisenberger, Weier, Masterson, & Theis, 1989) 등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바람직한 행동의 실행이 방해받는 경우가 많다. 방해요인의 영향을 제어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행동을 실행하도록 자신을 규제하는 것을 자기통제로 규정할 때(정영숙, 1994), 신체적 고통이나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일정한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 역시 자기통제의 한 형태가 된다.

자기통제를 증진시키는 원천의 하나로서 어머니에 대한 배려에 대한 제안은 행위자 자신에게 발생하는 물질적 보상이나 사회적 보상을 통한 자기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선행연구에 대한 개관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찰로부터 제기되었다. 정영숙(1994)은 어린 아동들이 먹고싶은 충동이 고조될 때 더 많은 물질적 보상을 얻기 위해 욕구만족을 지연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보상을 취하는 경향을 보인 점(정영숙, 1984; Miller, Weinstein, & Karniol, 1978; Mischel & Baker, 1975; Mischel & Ebbesen, 1970; Moore, Mischel, & Zeiss, 1976; Toner & Smith, 1977)과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자신이 체험하는 고통이 클 때에 사람들이 그 일을 자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일상적 관찰을 토대로 유기체에게서 고통에 대한 회피경향성이 유인 자극에 대한 접근경향성보다 더 강하다는 점(Brown, 1948; Dollard & Miller, 1950)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행위자 자신에게 발생하는 득으로 인한 자기통제의 한계성을 제기하고, 자기통제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적 원천의 하나로서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제안하고 그 효과를 실험적으로 입증하고자 시도하였다.

정영숙 등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들(정영숙, 1994; 정영숙, 1995; 정영숙과 김은경, 원고; 정영숙과 손자경, 1995)은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고통을 참아내는데 도움이 되고, 유혹저항에도 도움이 되고, 욕구만족을 지연하는데에도 도움이 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자기통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수행해야할 많은 일들이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시간내에서 개인이 과제를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는지(과제수행의 열심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어머니에 대한 배려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제를 어느 정도 오래 수행하는지(과제의 지속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얻어진 어머니에 대한 배려의 강력한 효과(정영숙, 1994)가 종속변인을 달리 하였을 때에도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반복검증의 성질을 띠고 있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주어진 일정한 시간 내에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게 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자기통제를 증진시키는 원천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배려의 강력한 효과를 일반화시키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실 험 1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이 발생할지 또는 어떤 불편이 발생할지를 예상하여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려하고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인을 배려할 때, 모든 타인을 동일하게 배려하는 것 같지는 않다. 어린 아동들도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어머니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자주 더 쉽게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Zahn-Waxler, Radke-Yarrow, Wagner, & Chapman, 1992).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동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 자원과 정서적 자원을 공급하는 아동의 애착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 1969; Erikson, 1963), 아동들이 배려하기가 용이한 타인 중의 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일 것이다(Aron, Aron, Tudor, & Nelson, 1991).

어머니에 대한 배려란 자기 어머니의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상태나 필요 또는 감정에 의식적으로 주목하여 어머니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다(정영숙, 1994).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어머니를 이롭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아동들이 어머니

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일 중의 하나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좋아할 선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다. 정영숙 등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힘든 일을 하는 댓가로 자신들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갖다줄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들로 하여금 어머니를 배려하도록 유도하였다(정영숙, 1994; 정영숙과 김은경, 원고; 정영숙과 손자경, 1995; 정영숙과 조용희, 1995).

본 연구의 실험에서도 아동들에게 어머니에게 필요한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유도하였지만, 정영숙 등이 행한 선행 연구에서의 조작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아동이 힘든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아동 자신이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어머니에게 갖다줄 선물을 받았다. 이 경우 어머니에게 선물이 생기는 일을 하면 아동 자신의 선물은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힘든 일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동 자신이 선물을 받되, 그 일을 아주 많이 할 경우에는 아동에게 필요한 선물이 추가되거나(자기선물추가 조건) 아니면 어머니에게 필요한 선물이 추가되도록(어머니선물추가 조건) 조작하였다.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에 의해서 두 조건을 구분하려고 했던 것에는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힘든 일을 하면 적어도 아동 자신에게 조그만 유익이라도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예: 어머니에게 선물을 갖다 주는 것)이 제시되었을 때, 초등학교 아동들이나 취학전 아동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더 오래도록 수행했던 선행 연구 결과들(정영숙, 1994; 정영숙과 김은경, 원고)을 바탕으로, 정영숙(1994, 1995)은 어머니에 대한 배려의 성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 첫째, 어머니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타인의 복지를 생각하는 배려는 개인의 내부로부터 나온 내재적인 동기의 성질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고통을 참아내는 힘이 강할 것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타인을 위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제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Baumeister, 1991;

Klinger, 1977). 둘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생길 득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하게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타인에게 생길 득을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신으로 향해 덜 주목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배려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어머니에게 선물이 생기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고통에 대한 지각이 덜하고 기분도 윤택하다는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해주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정영숙과 조용희, 1995).

주어진 일정한 시간 내에 고통스럽고 힘든 과제(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어머니에게 선물이 생기는 조건으로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유도한 본 실험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였다. 첫째, 어머니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이 자기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에 비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힘든 과제를 더 열심히 할 것이다(예언 1). 둘째, 선물이 제공되는 조건의 아동들이 선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통제집단의 아동들보다 힘든 과제를 더 열심히 할 것이다(예언 2).

## 방 법

피험자 부산 시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5학년 두 학급에서 왼손잡이가 아니면서 친어머니와 함께 사는 남, 여 각각 27명씩 총 54명의 학생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성적이 아주 우수하지도 않고 성적이 아주 부진하지도 않은 중간 성적의 아동들이었다.

실험과제 표적행동을 실행해가면서 아동들이 고통과 지겨움을 느낄 수 있는 과제로 정영숙(1994)이 사용했던 왼손으로 글자쓰기 과제를 약간 변형시켜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왼손으로 글자쓰기 과제는 아동들이 윗 줄에 있는 글자를 보고 그 아랫 줄에 다 왼손으로 그대로 따라 적는 것이었다. 아동이 따라서 적어야 할 글자는 보통의 글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울상의 글자이었다. 정상적인 보통 글자를 제시하는 경우 여러 글자를 한꺼번에 보았다가 적을 가

능성이 있기에 아동으로 하여금 한자씩 한자씩 따라 적게 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였다. 한 줄에는 10자의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 중의 반은 받침이 있는 글자이었고 나머지 반은 받침이 없는 글자이었다. 이 글자들을 종류가 다른 네모 칸 속에 써서 제시하였는데 네모 칸의 크기에 따라 옆으로 퍼진 칸, 길쭉한 칸, 보통의 칸의 세 종류가 있었다. 글자를 쓰는 칸의 크기를 달리 한 것은 윗줄에 있는 글자를 따라 적는 이유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이 글자쓰기를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는 글자쓰기에 대한 전이 효과를 가급적 약화시키려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였다. 요컨대 본 실험의 과제는 오른손잡이 아동들이 손에 힘을 주어 왼손으로 글자를 쓰되 글자의 모양과 크기를 보고 그대로 따라 적고, 또박또박 적고, 그리고 글자가 빈 칸을 넘어가지 않게 따라 적는 것이었다. 연습시행과 본시행을 구분하기 위해 아동들에게 연습 시행에서는 한 페이지에 30자의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 용지를 제공하였고, 본 시행에서는 한 페이지마다 20자의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 용지를 제공하였다.

독립변인의 조작 본 실험에 참여한 아동은 세 가지 조건 중의 어느 한 조건의 처치를 받았다. 아동에게 선물이 제공되는 두 조건에서는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하는 댓가로 기본적으로 아동 자신에게 필요한 선물이 제공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 아동에게 필요한 또다른 선물이 추가되거나(자기선물추가 조건) 아동의 어머니에게 필요한 선물이 추가되었다(어머니선물추가 조건). 즉, 자기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에게는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많이하면 아동들이 좋아하는 다른 종류의 학용품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어머니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에게는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많이하면 어머니에게 필요한 선물을 추가로 받게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통제집단의 아동들에게는 선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채 글자를 쓰도록 요구하였다. 세 집단의 아동 모두에게 글자를 쓰다가 아주 힘이 들면 글자를 안쓰고 쉬어도 되고, 오른손으로 연습장에 낙서를 해도 된다고 알려주었다. 아동에게 주어진 모든

지시문은 헤드폰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자기선물 추가 조건과 어머니 선물 추가조건의 아동에게 주어진 지시문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았다.

선생님이 글자를 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려는 것은 공책인데, 왼손으로 글자를 많이 쓸수록 공책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글자를 아주 많이 쓰면 공책말고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끼워쓰는 색연필도 하나 더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색연필을 선물로 더 받으면 참 기쁘겠지요!(자기선물 추가 조건)

선생님이 글자를 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려는 것은 공책인데, 왼손으로 글자를 많이 쓸수록 공책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글자를 아주 많이 쓰면 공책말고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엄마에게 갖다 줄 예쁜 손수건도 하나 더 받게 될 겁니다. 고생하시는 엄마에게 선물을 갖다 드리면 엄마가 참 기뻐하시겠죠!(어머니선물 추가 조건)

절차 실험에 참여할 학생들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선발하였다. 담임 선생님이 학급의 전체 아동들에게 글씨체를 연구하는 부산대학교 선생님이 5학년들의 글씨체가 필요하셔서 오셨다는 것과 그 학급의 학생들이 그 일에 참여하기로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글자쓰기에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참여한다는 것과 참여할 학생은 부산대학교에서 오신 선생님이 출석부에 적혀 있는 이름을 보고 정해준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름이 불린 학생들은 6인(남, 여 각각 3명씩)이 한 조가 되어 집단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한 조에 6명의 인원이 배정된 것은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이었고 실험에 사용된 조건이 세 조건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매 조마다 남,여 아동들은 각각 상이한 세 가지 처치 중의 한 처치를 받았다. 선행 연구들(정영숙, 1994; 정영숙과 조용희, 1995)에 서와는 달리 본 실험에서 집단적으로 실험을 시도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아동들의 학교생활이 대부분 집단적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 실험보다 집단 실험이 아동들에게 좀 더 자연스럽고 친숙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해서였다.

아동들이 실험실에 들어와 앉으면 실험자는 아동들

에게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각각 3분으로 된 두 번의 연습을 시켰다. 두 번의 연습시행을 하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한 가지 목적은 글자를 쓰는 데 있어서 개인차가 있으므로 연습 시행을 통해 왼손으로 글자를 쓸 수 있는 개인의 기본 능력을 재려는 것이었고, 두번째 목적은 왼손으로 글자쓰기가 힘들고 지겨운 과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체험시키기 위해서였다. 연습시행이 끝난 후에 실험자는 왼손으로 글자를 쓰는 일은 힘이 들기 때문에 글자를 쓰다가 아주 힘이 들면 글자를 안 써고 쉬어도 되고, 손가락 운동을 해도 되고, 글자쓰기 종이 아래에 있는 빈 곳에다 낙서를 해도 된다고 말해 주었다.

실험에 참여한 남, 여 아동들은 녹음된 처치 조건용 테이프의 내용을 개인별 헤드폰을 통해서 받았다. 아동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글자(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쓰려면 정신을 집중해야 하므로 바깥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막기 위해서 헤드폰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아동들은 비록 집단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으나 처치는 독립적으로 받은 셈이 된다. 실험에 참여할 아동들과 실험자가 실험실에 들어 오기 전에 실험보조자는 녹음된 처치 테이프를 남, 여 별로 책상 위에 놓여있는 개인용 녹음기에 무선적으로 삽입하였다. 따라서 실험자는 어느 위치의 학생이 어떤 처치를 받는지를 알 수 없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헤드폰을 통해서 음악소리가 들리면 아동에게 손을 들게 하였다. 음악소리가 끝난 후에 세 가지 처치 중의 어느 한 처치 내용이 아동에게 개인별로 전달되었다. 처음의 처치 지시가 있는 7분 후에 아동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한 번 더 들려주었다. 글자쓰기를 시작한 지 15분이 지나면 아동들은 헤드폰을 통해서 그만하라는 지시를 받고 왼손으로 글자쓰는 일을 마쳤다.

개인의 기본능력의 측정 본 시행 15분 동안 아동들이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이 할 수 있는 개인별 기본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아동이 15분간 글자를 100자 썼다고 할 때, 만약 15분 동안

150 글자를 쓸 수 있는 아동이 100 글자를 썼다고 하면 그 아동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고, 50 글자를 쓸 수 있는 아동이 100 글자를 썼다면 아주 열심히 그 일을 한 것이다. 본 시행에서 개별 아동이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열심히 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개인의 기본능력으로는 두 번의 연습 시행 중 두번째 연습시행에서의 수행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왼손으로 거울상의 글자를 적는 일이 오른손잡이 아동들에게 다소 낯선 일이기 에 첫번째 연습시행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나 위축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과제에 대해 약간의 적응이 일어난 후의 수행이 개인의 기본 능력의 지표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종속변인(과제수행의 열심도)의 측정 과제수행의 열심도란 본 시행동안 개인이 쓴 글자의 양이 개인의 기본 능력을 고려해 볼 때에 얼마나 많이 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지표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연습에서의 수행은 3분 간의 수행이었고 본 시행의 수행 시간은 15분 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과제수행의 열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습시행 3분 간의 수행을 5배하여서 그것을 15분 동안 개인이 할 수 있는 수행량(기대수행)으로 추정하였다. 개인의 기대수행은 글자를 계속 써봄으로써 생기는 전이 효과나 적응 효과 혹은 피로 효과는 모두에게 동일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었다. 실험1에서 사용된 개인의 과제수행의 열심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되었다.

과제수행의 열심도(%)=

$$\frac{\text{본시행 15분간 개인이 쓴 글자의 수}}{\text{두번째 연습시행에서 개인이 쓴 글자수} \times 5} \times 100$$

## 결 과

실험1에 참가한 피험자 중에 여학생 1명의 자료는 결과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 피험자의 자료는 15분 동안 계속 글자를 지우느라고 개인의 수행량(15분 동안 10자 씩)을 평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따라서 결과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53(남: 27, 여: 26)명의 자료였다. 남, 여별 각 조건의 개인의

과제수행의 열심도(백분율)의 평균이 표1에 제시되어 있다.

각 조건별 아동들의 과제수행의 열심도를 변량분석한 결과, 성의 주효과가 있었다( $F(1,47)=8.56, p<.005$ ).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하여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열심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과 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 $F(2,47)=.98, ns$ )와 처치 조건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2,47)=1.87, .15<p<.20$ ).

과제수행의 열심도에서 나타난 성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통제집단의 여학생들이 통제집단의 남학생들보다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열심히 수행하였다( $t(16)=2.15, p<.05$ , 양방검증). 그리고 자기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여학생들이 자기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남학생들보다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을 보였다( $t(16)=2.10, p<.06$ , 양방검증). 반면에 어머니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차이없이 과제수행을 열심히 하였다.

실험1의 자료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여학생들은 세 조건 모두에서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어머니

선물이 추가되는 경우에만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열심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남학생들은 선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통제집단의 남학생들에 비하여 왼손으로 글자를 더 열심히 하였고( $t(16)=3.64, p<.01$ , 양방검증), 자기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남학생들보다도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열심히 하였다( $t(16)=2.69, p<.02$ , 양방검증). 그러나 자기의 선물이 주어지는 조건의 남학생들과 통제집단의 남학생들의 수행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갖다줄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어머니를 배려하도록 유도한 실험1의 결과, 적어도 남학생들에게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선물이 추가되는 경우보다 그 힘든 일을 열심히 하는 댓가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선물이 추가되는 경우에 남자 아동들이 힘든 일을 더 열심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록 남학생에게서만 얻어진 부분적인 것이긴 하지만, 종속변인을 달리하였던 같은 연령의 아동들에게서 얻어진 선행 연구의 결과(정영숙, 1994)나, 어린 아동들에게서 얻어진 결과(정영숙과 손자경, 1995; 정영숙과 김은경, 원고)와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왜 여학생들은 세 조건 모두에서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열심히 한 것으로 나타났을까 하는 점이다. 가능한 이유로서 우선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습시행에서 여학생들이 낯선 과제(오른손잡이 아동들이 거울상으로된 글자를 왼손으로 쓰는 것)를 실행할 때에 남학생에 비하여 더 조심스럽게 반응할 경우, 본 시행에서의 개인의 수행이 실제보다 더 열심히 한 것으로 과대평가될 수 있다. 즉, 본 실험에서의 과제수행의 열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인의 기본 능력으로 간주했던 연습시행에서의 수행이 개인의 실제 능력보다 더 낮게 추정되어 결과적으로 본 시행에서의 수행이 다소 과장되게 평가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험1에서 사용된 세 조건 간에 여학생들의 수행이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또다른 가능성은 총 6분간의 연습시행 시간이 여학생들이 왼손으로 글자쓰기가 신체적으로 힘들고 지루한 과제임을 체험하기에 다소 짧은 시

표 1. 왼손으로 글자쓰기에서의 조건별 과제수행의 열심도 평균(단위: 백분율)

	처치조건		
	자기선물추가	어머니선물추가	통제집단
남	82.33 <sup>a</sup> (27.59) (n=9)	118.78 (29.74) (n=9)	70.00 (27.02) (n=9)
	129.11 (61.03) (n=9)	130.38 (64.06) (n=8)	120.67 (48.23) (n=9)
여			

<sup>a</sup> 수치가 클수록 과제를 더 열심히 수행하였음을 의미함. 100은 연습시행에서 보였던 개인의 기본능력 만큼 본 시행에서 개인이 과제를 수행하였음을, 100보다 더 큰 수치는 연습시행에서 보였던 개인의 기본능력에 비해 더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였음을, 그리고 100보다 작은 수치는 연습시행에서 보였던 개인의 기본능력에 비해 과제를 덜 열심히 수행하였음을 의미함.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간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험2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제거하여 왼손으로 글자쓰기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신체적으로 힘들고 지루한 과제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절차를 보완하여 실험1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실험2에서 보완된 점으로는, 첫째 개인의 기본 능력을 안정되게 측정하고, 왼손으로 글자쓰는 일이 힘들고 지겨운 일임을 보다 확실하게 체험하도록 연습시행의 시간을 늘였다. 그리고 평소에 접해보지 않은 낯선 과제에 대한 불안을 약간이라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연습시행 전에 왼손으로 글자쓰는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왼손으로 글자를 몇 자 써 보게 하였다. 아울러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조금 더 힘든 과제로 만들기 위해서 보고 따라 적어야 할 글자를 모두 받침있는 글자로 바꾸었다.

## 실 험 2

실험1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실험2에서는 2회의 연습시행의 시간을 각각 7분 30초로 늘여 연습시행의 전체 시간이 15분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써야 할 글자를 모두 받침있는 글자로 하여 실험1에서보다 과제의 난이도를 약간 높였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실험1에서 나타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수행의 차이가 사라지는지, 그리고 이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실험1에서 남학생에게서 나타난 양상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반복검증하고자 실험2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실험2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였다. 성에 관계없이 어머니에게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이 자기에게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보다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열심히 할 것이다.

### 방 법

피험자 부산 시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 5학년 한 학급에서 친어머니와 함께 사는 오른손잡이 남, 여 아동 30명(각각 15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과제 아동이 따라 적어야 할 글자가 모두 받

침이 있는 글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험1에서 사용된 과제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였다.

독립변인의 조작 실험2에 참여한 아동들은 실험1에서 사용된 조건과 동일한 세 가지 처치 중의 어느 한 처치를 받았다. 실험1에서와 같이 자기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에게는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많이 하면 아동들이 좋아하는 다른 종류의 학용품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어머니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에게는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많이 하면 어머니에게 필요한 선물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통제집단의 아동들에게는 선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채 글자를 쓰도록 요구하였다.

절차 연습시행의 시간이 늘어난 것 이외에 모든 절차는 실험1과 동일하였다.

개인의 기본 능력과 과제수행의 열심도 측정 실험2에서는 7분 30초 간의 연습시행을 2회 실시하였는데, 개인의 기본 능력은 실험1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의 연습 시행 중에서 후반부 동안의 수행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실험2에서 개인의 과제수행의 열심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과제수행의 열심도(%)=

$$\frac{15분\ 간의\ 본\ 시행에서\ 개인이\ 쓴\ 글자의\ 수}{두번째\ 연습시행에서\ 개인이\ 쓴\ 글자의\ 수 \times 2} \times 100$$

### 결 과

연습시행 시간을 7분 30초로 늘려 개인의 기본능력을 재고 이를 토대로 본 시행 15분 간의 수행의 열심도를 측정한 결과 나타난 세 조건별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을 표2에 제시하였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연습시행의 시간을 늘려 개인의 과제수행의 열심도를 재 결과 실험1에서 나타났던 성차가 사라졌다( $F(1,24) = .58, ns$ ). 그리고 성과 처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 $F(2,24) = .73, ns$ ).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수행에 성차가 없어 실험2에서는 남, 여의 자료를 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는데, 표2의 아래 쪽에 세 처치 조건별 과제수행의 열심도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남, 여를 합친 아동들의 처

표 2. 세 조건별 남학생과 여학생의 과제수행의  
열심도 평균(단위:백분율)

성별	처 치 조 건			계
	자기선물추가	어머니선물추가	통제집단	
남	98.60 <sup>a</sup>	113.00	81.60	97.73
	(26.20)	(23.10)	(35.59)	
	(n=5)	(n=5)	(n=5)	
여	74.00	119.80	75.20	89.67
	(39.81)	(6.50)	(31.30)	
	(n=5)	(n=5)	(n=5)	
계	86.30	116.40	78.40	
	(34.31)	(16.39)	(31.78)	
	(n=10)	(n=10)	(n=10)	

<sup>a</sup> 수치가 클수록 과제를 더 열심히 수행하였음을 의미함. 100은 연습시행에서 보였던 개인의 기본능력 만큼 본 시행에서 개인이 과제를 수행하였음을, 100보다 더 큰 수치는 연습시행에서 보였던 개인의 기본능력에 비해 더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였음을, 그리고 100보다 작은 수치는 연습시행에서 보였던 개인의 기본능력에 비해 과제를 덜 열심히 수행하였음을 의미함.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임

치 간 수행을 비교해 보면, 어머니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은 선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통제집단의 아동들보다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열심히 하였다( $t(18)=3.36, p<0.01$ , 양방 검증). 그리고 어머니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은 자기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보다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열심히 하였다( $t(18)=2.50, p<0.05$ , 양방 검증). 그러나 자기선물이 추가되는 조건과 선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통제집단 간의 수행에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t=.53, ns$ ), 이는 실험1의 남학생의 자료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이었다.

## 종합 논의

대부분의 사회는 삶의 특정 시기에 따라 개인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일들이 있고, 개인은 그 일을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성과를 얻는 일이 많음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힘든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는 과제수행

의 열심도를 자기통제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행위자 자신에게 득이 생기는 경우와 행위자에게 중요하고 좋아하는 타인의 한 사람인 어머니에게 득이 생기는 경우에서의 과제수행의 열심도를 비교하였다.

오른손잡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고 지루한 왼손으로 글자쓰기 과제를 사용하여 연습시행에서 개인의 기본 능력을 재었고, 이것을 근거로 본 시행 15분 동안 아동이 수행한 과제의 열심도를 측정하였다. 두 번의 연습시행 시간을 3분의 짧은 시간으로 하였던 실험1에서는 남, 여에 따라 과제수행의 양상이 달랐다. 전체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열심히 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이 자기의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이나 통제집단의 아동들보다 왼손으로 쓴 글자의 양이 더 많았다(예언 1 지지).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자기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남학생들이 선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통제집단의 남학생보다 과제수행을 더 열심히 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연습시행의 시간이 짧았던 실험1에서 여자 아동의 경우에는 처치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가 비교적 열심히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시행의 시간이 짧음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성차를 없애고, 보다 안정된 개인능력의 측정을 위해 연습 시행의 시간을 3분에서 7분 30초로 늘린 실험2에서는 실험1에서 나타났던 성차가 사라졌다. 그리고 실험2에서 나타난 결과는 실험1에서 남학생에게서 나타난 양상과 동일하였다. 즉, 어머니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이 자기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이나 통제집단의 아동들보다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열심히 하였다(예언1 지지). 그러나 자기의 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과 통제집단의 아동들 간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은 예언2와는 다른 결과이었으나 실험1의 남학생에게서 얻어진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었다.

과제를 열심히 수행할수록 자신이 받을 선물이 많아지는 경우의 아동들이 선물을 받게된다는 언급이 없었던 통제집단의 아동들보다 과제수행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기선물 취득 집단의 아동과 통제집단의 아동의 수행이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 즉 통제집단의 아동들이 과제를 열심히 수행한 탓인지 아니면 자기선물 취득 집단의 아동들이 과제를 덜 열심히 수행한 탓인지 두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기선물 취득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수행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통제집단의 아동들이 자기선물 취득 조건의 아동들만큼 과제를 열심히 수행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가능성은 본 실험이 집단적으로 수행되었다 데에서 생겨날 수 있을 것 같다. 통제집단의 아동들은 비록 과제를 수행하는 댓가로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수행이 실험에 참여한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면 안된다거나 더 잘해야겠다는 비교의식이나 경쟁심이 각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각성된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은 아동들로 하여금 수행을 형편없이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험1의 남자아동에게서 얻어진 과제수행의 열심도나 실험2에서 남, 여를 합친 자료의 수치가 보여주는 바는, 통제집단의 아동들이 자기선물 취득조건의 아동들만큼 수행을 열심히 했다고 보다는 자기선물 집단의 아동들이 선물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열심도 수치 100은 본시행 15분 동안 개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 이하의 수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리고 100 이상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험1의 남자아동의 경우, 자기선물 추가 조건의 평균 열심도는 약 82%, 통제집단의 평균 열심도는 70% 이었고, 실험2의 자료에서는 자기선물 추가 조건의 남, 여 아동들의 평균은 약 86%, 통제집단 아동들의 평균은 약 78%이었다. 이 수치는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즉, 이 수치는 왼손으로 글자쓰기와 같은 지겹고 힘든 일

(정영숙, 1994 참조)을 열심히 하면 자기의 선물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 아동들은 자기에게 생기는 이득을 얻으려는 쪽보다는 자신이 체험하는 고통을 피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어머니선물이 제공되는 집단의 아동들은 나머지 두 조건의 아동들에 비해 힘든 과제인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열심히 수행하였다. 그런데 어머니선물 추가 조건과 나머지 두 조건 간에 열심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선물이 제공되는 조건의 아동들에게서 얻어진 열심도 수치 역시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1에서나 실험2에서나 어머니 선물이 제공되는 경우 아동들의 과제 열심도 수치가 모두 100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실험1에서 남학생의 경우 약 119%, 여학생의 경우 약 130% 이었고, 실험2에서는 남, 여 합쳐 약 116%임). 어머니선물 취득 조건에서 보여준 이 수치는 통제집단이나 자기선물 추가 조건의 과제 열심도의 평균과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수리적으로 열심도 115%란 개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15%의 노력을 더 투입하였다는 뜻인 반면에, 열심도 85%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15%의 노력을 감하였다는 뜻이 된다. 물론 심리적 수치와 수리적 수치가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머니 선물 추가 조건의 열심도 수치와 나머지 두 조건의 열심도 수치는 한 쪽은 개인이 노력을 증진시켰고 다른 쪽은 자신의 노력을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발생하는 득으로 인한 자기통제의 한계성과 자신이 좋아하는 타인(예: 어머니)에게 발생하는 득으로 인한 자기통제의 강력한 효과가 다양한 자기통제 상황에 일반화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본 연구 결과, 힘든 일을 열심히 할수록 자기 선물이 추가될 경우보다 그 일을 열심히 할수록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선물이 추가되는 경우에 아동들은 힘든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힘든 과제를 열심히 하게 하는 원천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고생을 생

각해서 재미있는 유혹을 물리치고 어머니가 기뻐할 속제를 하였고(정영숙, 1994),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갖다드리기 위해서 힘들고 지겨운 일을 오래 수행하였고(정영숙, 1994), 그리고 취학전 아동들이 자신을 위해 수고하는 어머니에게 더 많은 과자를 갖다 주기 위해 오래 기다렸던 결과(정영숙과 손자경, 1995)와 일치하고 있다. 즉, 어머니의 고생을 알려주고 어머니가 기뻐할 구체적인 일(어머니에게 선물이 생긴다 또는 어머니가 기뻐한다)을 제시하여 어머니를 배려하도록 유도하면, 아동들은 유혹에 잘 저항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오래 하기도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열심히 하기도 하는 등 자기통제가 증진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영숙(1994)이 제안한 바,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를 증진시키는 강력한 자기통제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해주는 추가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정영숙(1995). 두 유형의 사회적 기대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 85-97.

정영숙(1994).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정영숙(1984). 욕구만족 지연상황에서 보상의 제시 방법이 보상가치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정영숙·김은경(원고). 보상수혜자에 따른 취학전 아동의 자기통제 효과의 차이.(준비중)

정영숙·손자경(1995). 보상수혜자에 따른 취학전 아동의 욕구만족 지연 효과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 136-147.

정영숙·조용희(1995). 보상의 수혜자가 자기인 경우와 어머니인 경우의 심리적 반응의 차이: 과제 중요도 지각, 정서 및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부산대 사회과학논총, 14, 217-235.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

dale, NJ: Erlbaum.

Aron, A., Aron, E. N., Tudor, M., & Nelson, G. (1991). Close relationships as including other in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41-253.

Baumeister, R. F.(1991). *Meanings of lif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Berlyne, D. N.(1960). *Conflict, arousal and curiosity*. New York: McGraw-Hill.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Books.

Brown, J. S.(1948). Gradients of approach and avoidance responses and their relation to level of motivation. *Journal of Comparative and Physiological Psychology*, 41, 450-465.

Dollard, J., & Miller, N. E.(1950).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An analysis in terms of learning, thinking, and culture*. New York: McGraw-Hill.

Eisenberger, R., Weier, F., Masterson, F. A., & Theis, L. Y.(1989). Fixed-ratio schedules increase generalized self-control: preference for large rewards despite high effort or punishmen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nimal Behavior Processes*, 15, 383-392.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Klinger, E.(1977). *Meaning and voi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ller, D. T., Weinstein, S. M., & Karniol, R.(1978). Effects of age and self-valuation on children's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569-570.

Mischel, W. & Baker, N.(1975). Cognitive appraisals and transformations in delay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254-261.

Mischel, W., & Ebbeson, E. B.(1970). Attention in

-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329-337.
- Moore, B., Mischel, W., & Zeiss, A. R.(1976). Comparative effects of the reward stimulus and its cognitive representation in voluntary dela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419-424.
- Patterson, C. J., & Mischel, W.(1976). Effects of temptation-inhibiting and task-facilitating plans on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209-217.
- Toner, I. J., & Smith, R. A.(1977). Age and overt verbalization in delay-maintenance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4, 123-128.
- Zahn-Waxler, C., Radke-Yarrow, M., Wagner, E., & Chapman, N.(1992).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26-136.

# Effects of Concern for Mother on Industriousness in Performing Task

Young-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wo experiments using industriousness as dependent variable were conducted to confirm the powerful effect of concern for mother on self-control in working hard setting. Fifth grade right-handed children who were treated with one of three experimental conditions copied mirror-image letters with their left hand. This task was very laborious and tedious to children. Industriousness in performing task was measured based on individual performance in exercise session. Children participating in experiment 1 showed different patterns of performance according to their sex. Male children in the condition of reward for mother performed more ardently than those both in reward for self condition and in control condition. But there were no difference in performance among conditions in female children. In experiment 2 making exercise time longer, there disappeared the sex difference found in experiment 1. The result of experiment 2 was identical with the result of obtained in male subjects in experiment 1.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Chong, 1994). This result supported Chong's proposal for sources of self-control(1994): The effect of self-control to get one's own benefit is limited but the effect of self-control to give benefit to significant other is powerful.

*Key words: concern for mother, industriousness in performing task, self-control.*